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집회는 떼제 공동체의 신한열 수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월 12일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화여고에서 열립니다. 이 날은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성경봉독 시간에는 예배당 출입을 삼갑니다.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문을 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 17:1~7 / 시 78:1~4
빌 2:1~13 / 마 21:23~32

행 27:33-38

오늘 식당 봉사 : 찬양대
다음 주 식당봉사 : 김윤정 조병주 최은미 박시내 김명하 오형일 윤성중
오늘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떡 대 접 : 조헌권/박아영 (조준혁 돌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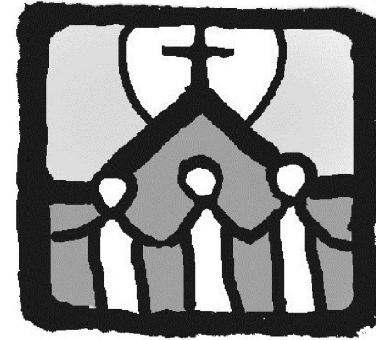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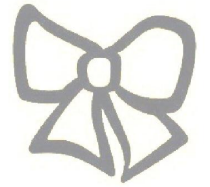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참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며 논밭에는 오곡백과가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는 아픔과 고통, 조롱과 반목, 통제와 단속에 난무합니다. 주님, 이 사회가 속히 주님의 순리를 따르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봄처럼 푸르른 삶을 살아야 할 청년들이 무겁고 차가운 세상 기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주님, 청년들에게 청년 예수에게 있었던 결기와 뜨거운 사랑을 붙여넣어주십시오. 이 잿빛 세상에 하늘이 부여한 푸른 목소리로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금순	김남종	오복선	김순자	김정민	이혜령
김희진	박홍재	박규석	박경선	박병구	박옥순	박인혁	박창운	허정윤
변재민	이소혜	서정순	안세진	오미숙	윤성종	김윤정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근식	신영신	이봉옥	이왕준	송상경	이응석	이은경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진영	한양미	이한림	김명희	임호성	장원호	박성희
전인섭	정선희	정우선	조관행	홍선희	조문규	진정숙	조현권	박아영
주경진	이윤정	최미자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추현영	한상경	허준호
홍복선	홍소형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김기석	김중현	성귀옥	김진중	김태정	김흥기	박병구	박시내	안길상
이형숙	안 현	전인섭	조장형	박윤숙	최희영	김재흥	황현성	이오복
시시권	박경림	무명13						

녹색꿈헌금

김재흥 이진영 한양미 무명

	백혜숙	박성희	조순덕	심소순
	신진식	최경미	차혜심	이소자
	장영숙	신영신	박정숙	곽혜순
	노순옥	진정숙	안정숙	박옥경
	박홍재	박홍재	조영순	김경수
	권미숙	박미영	정영례	심범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강순배
	곽권희	윤수진	김재광	곽권희
	안홍숙	오현정	김현정	정현심
	정영선	홍춘숙	김경혜	조향미
	박혜경	박혜경	임창선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마음으로 읽는 글

산 속에서

- 나희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더러운 일을 버리십시오. 빛나간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굳게 붙들고 바른 일에 힘쓰며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사십시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리석게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릇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살겠습니다. 바르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기도의 밤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이진영 집사 이형숙 권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박석희 이민범 홍춘숙 김경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연약함의 힘

세상의 기운이 정말 바뀌고 있나 봅니다. 최근 제가 참석한 국제 콤포퍼런스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종류의 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 왔다면, 다가오는 세상은 돌봄과 정의, 상호 존중의 관계성과 창의성에서 나오는 힘이 만들어 가리라는 예언입니다.

뉴욕 주 북부의 숲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인 영성 센터, 오메가 인스티튜트가 해마다 열고 있는 ‘여성과 힘’ 수련회의 주제 역시 ‘연약함의 힘’이었습니다.

주제 강사인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문화는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우월감, 수치심과 죄의식 등을 조장하였고, 그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기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 자아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하고, 그러려면 새로운 종류의 힘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 힘이 바로 ‘연약함의 힘’입니다.

연약함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 참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는 힘, 진실대로 살기 위해 모험할 수 있는 힘, 모험에 동반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견뎌 내는 힘, 자신이 원하는 것과 남이 원하는 것이 상충될 때 관계의 성장을 위해 균형 있게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힘 등입니다.

연약함의 힘을 키워 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수련회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연약함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쫄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자신의 성스러운 기반에 굳건히 서십시오.” (Don't shrink. Don't puff up. Stand firmly on your holy ground.) ...

그런데 쫄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사람에게만 하늘이 허락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이런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의 제도들도 서서히 바뀌어 가지 않을까요? 각자가 연약함의 힘을 키워 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매 순간 마음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

제가 몸담고 있는 유니언 신학대학원만 보아도 이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자아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는 학생이 더욱 많습니다.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는 농부가 되거나 친환경적인 집을 짓는 목수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니며 그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면의 소리를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창조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에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

‘연약함의 힘’이 세상 사람들 입에 회자된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제야 ‘철든’ 사람들의 가르침이 대중들에게도 공감을 얻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도 무엇에도 쫄거나 우쭐대지 말고 진정한 참 자아라는 성소에 굳게 서서 미래의 기운 속으로 걸어 들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